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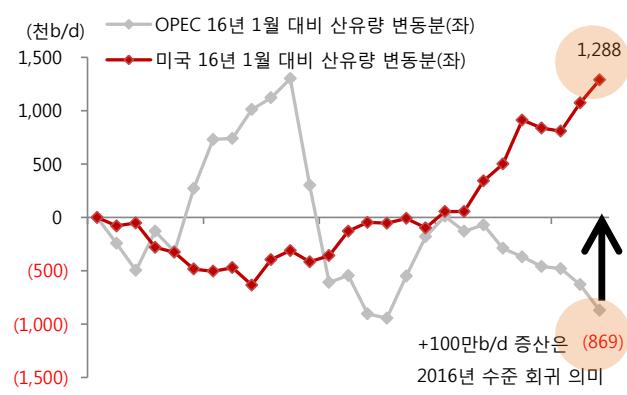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OPEC 회의의 결론: 지정학적 유가 상승 끝

- +100만b/d 증산 결정은 감산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를 의미함. 미국의 증산기조까지 감안 시 시장은 다시 공급과잉 국면 주목할 것. 이란이 설사 증산물량이 미비하더라도 미국이 적극수출정책으로 이를 감당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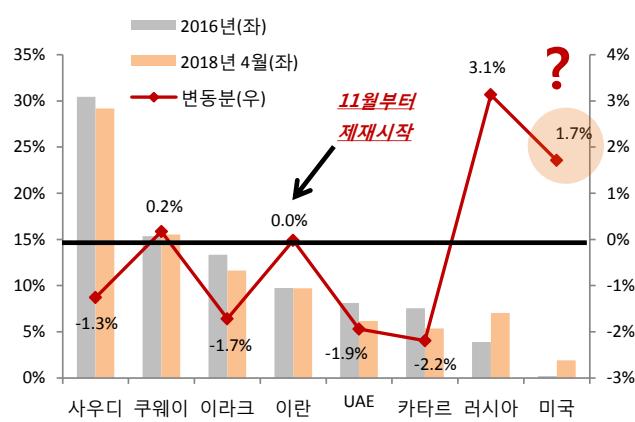
OPEC의 +100만b/d 증산은 감산 이전 수준 회귀를 의미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간만에 석유시장에서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6월 OPEC 정례회의가 22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
- 금번 OPEC 회의가 주는 단순 합의는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“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유가 단기 반등 끝”이 되겠네요
- 회의에서 +100만b/d 증산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2016년 이후 유가 상승을 위한 노력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. 실제 2016년 1월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 -87만b/d 감산을 이뤘는데, +100만b/d를 올리면 결국 이전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지요
- 누차 말씀 드리지만, 동 기간 미국은 +130만b/d를 늘리고 이 물량을 대규모 수출로 연결했습니다. OPEC의 감산보다 더 큰 물량이었고, 이제부터 시장은 이 fundamental에 주목할 것입니다

이란이 제대로 못 늘린다고? 미국이 있으니 걱정 마시길



자료 : KITA, SK증권

-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, OPEC 증산발표가 나온 당일 WTI는 +4.6% 급반등한 \$68.6/bbl을 기록했던 사실입니다
- 시장의 해석은 “+100만b/d는 예상된 만큼”이었고, 오히려 이란이 제재 등으로 물량을 제대로 못 늘릴 것이기에 “실제 증산량은 이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”이라는 것이었죠
- 하지만, 이는 또 미국을 간과한 의미 없는 해석입니다
- 이란 제재가 11월부터 시작되고 그 이전 그들의 수출물량 감소는 사실입니다. 이미 한국/인도 등 주요 원유수입국들이 이를 발표했죠
- 하지만 한국/인도는 줄어든 수입물량을 어디서 충당할까요? 당연히 미국입니다. 이미 LNG에서 그런 대응이 나왔고, 석유에서도 한국의 국가별 수입을 보면 미국이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됩니다
- 즉 이란이 약속만큼 못 늘려도 상관없습니다. 미국이 증산할 테니까요. 오히려 미국은 이를 더 반길지도 모릅니다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